

온라인 소통과 국어 교육의 역할

옥현진 이화여자대학교 초등교육과 교수

1. 소통에 대한 세 가지 일화

우리 사회에서 ‘온라인 소통’이 환기하는 느낌은 그리 밝지 않다. 선정적인 자료와 폭력적인 댓글,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들이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그 뒤에 ‘국어 교육’까지 붙었으니 아마도 독자들은 제목으로 미루어 ‘~은 나쁘다’ 하는 식의 비판 글이나 ‘~은 하지 말자’는 식의 제안을 떠올리기가 쉬울 것이다. 하지만 필자는 이 글에서 좀 다른 이야기를 하려 한다. 이 글을 구상하면서 필자는 ‘온라인 매체가 등장하기 전에는 우리의 소통에 과연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일까?’, ‘온라인 매체와 결부된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해 온라인 매체에 그 혐의를 씌우면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는가?’ 하고 자문해 보았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과 함께 떠오른 세 가지 일화로 글을 시작해보려고 한다.

첫째, 미국 유학 시절 필자는 한인 청소년들의 정체성 형성에 관한 박사 논문을 썼다. 자료 수집 과정에서 한인 청소년 100여 명을 만날 수 있었는데 그중 지금까지도 한 누리소통망을 통해 가끔씩 소식을 접하는 여학생이 있다. 당시 중학생이었던 그 여학생은 이민 2세대로 미국

에서 출생했으며, 주말이면 어린 여동생과 함께 청소 일을 하는 부모님을 도와 시내 한 사무실 건물을 청소하곤 했다. 지병을 앓고 있지만 의료보험이 없는 아버지를 위해 그 여학생은 가능한 한 빨리 교사가 되어 가장 역할을 하고 싶어 했고, 그 꿈대로 현재 한 주립 대학에서 수학교육을 전공하고 있다. 여느 이민 2세대와 달리 그 여학생은 아주 한국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원천은 주말 저녁에 할머니, 어머니와 함께 인터넷을 통해 시청하는 한국 텔레비전 프로그램이었다. 덕분에 그 여학생은 한류에 관심이 많은 아시아권 학생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높았다.

둘째, 몇 년 전 국책 연구 기관에서 근무할 때 필자는 한 아랍 국가의 초청을 받아 교육 박람회에서 우리나라의 교육을 소개할 기회가 있었다. 거기에서 통역을 돕는 대학생 또래의 아랍 여성 몇 명을 만날 수 있었다. 여성의 사회 활동이 극도로 제한된 나라에서 이들이 공식적인 자리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영어나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고 한국 문화에 대해 최소한의 이해가 있는 도우미가 필요하다는 우리 측의 요구 때문이었다. 주빈이었던 한국 방문단에 대한 교육 당국의 큰 배려였던 셈이다. 박람회가 개최되는 일주일 동안 필자는 그 여성들로부터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에 대해 여러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말로만 듣던 한류의 실체를 체험하는 순간이었다. 그 여성들, 그리고 그 또래 친구들은 특히 한국 드라마에 관심이 많다고 했다. 오늘 한국에서 드라마 한 회가 방영되면 24시간 이내에 아랍어 자막이 붙어 인터넷으로 제공된다고 했다. 이들이 그렇게 한국 드라마에 열광하는 것은 여성들의 자유로운 사회 활동에 대한 동경 때문이었다. 동시에 불만의 응어리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계속 커지고 있음을 그들의 말을 통해 체감할 수 있었다. 그중 한국어 구사 능력이 특

히 뛰어났던 한 여성은 이웃의 매우 가난한 나라 출신으로 기술자인 아버지를 따라 이민을 왔다고 했다. 차별받는 여성들 사이에서 또 다른 차별을 느껴야만 했던 그 여성은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필자에게도 여러 차례 묻더니 결국 그 꿈을 이루어 현재 충청도의 한 국립대학에서 유학하고 있다.

셋째, 몇 달 전 필자는 누리소통망에서 한 지인이 링크해 놓은, 치약에 대한 글 한 편을 읽었다. 치약 맨 아랫부분 중간에 선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 그 선의 색깔이 곧 치약의 성분을 표시하는 것이란 내용이었다.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검은색은 100% 화학 성분을, 빨간색은 화학 성분과 천연 성분의 혼합을, 그리고 녹색은 100% 천연 성분을 표시한다고까지 했다. 화장실에 있는 치약을 살펴보니 모조리 검은색이라 실망도 되고 화가 나기도 했다. 그러나 그 글은 사실이 아니었다. 며칠 뒤 또 다른 지인이 한 신문사의 기사(《월간헬스조선》 2014년 7월 호)를 링크해 댓글로 달아 놓았는데, 기사의 한 부분을 발췌해 보면 다음과 같다.

치약 뒷면에 있는 사각형 세로줄은 아이마크(Eye Mark)다. 용기를 인쇄할 때 기계가 치약 튜브의 중심을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표시다. 센서가 아이마크를 잘 인식하게 하고자 아이마크에 다양한 색상을 넣는다. 즉, 치약 뒷면 세로줄 색상은 제조업자의 단순한 잉크 색깔 선택에 달린 것일 뿐, 성분과는 무관한 것이다.

뭔가 수상쩍다는 생각에 사실 여부를 검색해서 친절하게 관련 기사까지 댓글로 올려준 지인이 한편으론 고맙기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나는 왜 그때 그 글을 그렇게 쉽게 믿어 버렸을까 부끄러워졌다.

2. 소통의 본질, 소통의 역사

소통은 인류가 온갖 역경을 견뎌 내고 지금의 찬란한 문명과 문화를 이룩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이었다. 인류에게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는 새로운 소통 방식, 그리고 그 새로운 방식을 제안한 이들에 대한 인류의 존경과 찬사를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예로 미국의 한 방송사(A&E Network)는 20세기가 저물어 가던 지난 1999년에 세계적인 학자, 언론가, 예술가를 대상으로 지난 1000년의 역사 동안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구였는지 물은 뒤 그 결과를 방송 프로그램으로 제작한 적이 있다. 수많은 사상가, 정치가, 과학자, 예술가들을 제치고 1위에 오른 사람은 구텐베르크였다. 영국의 존 판던(John Farndon)이라는 작가도 비슷한 실험을 한 적이 있다. 그는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아이디어 50가지를 추출한 다음, 수천 명의 영국 네티즌들에게 그중 가장 위대한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물었다. 그 결과 1위를 차지한 것은 인터넷이었고 2위는 문자였다. 서울의 한 유명 사립 대학에서는 학부 1학년과 2학년 학생 4,900여 명에게 ‘한국 역사상 가장 훌륭한 인물’을 물어보는 설문을 하고 그 결과를 그 대학 신문에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이 설문에서 1위에 오른 사람은 세종 대왕이었다. 고인이 된 시카고 대학의 제임스 매콜리(James McCawley) 교수는 매년 10월 9일이면 휴강을 하고 학생들을 집으로 불러 한글날을 기념했다는 일화로 유명한데, 우리 대학생들의 설문 결과도 매콜리 교수의 찬사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라 여겨진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소통하고 싶어 하는가? 그 까닭을 위에서 소개한 일화와 한번 연결해 보자. 첫째 일화의 여학생이 인터넷이라는 소통 경로로 한국에서 제작된 디지털 콘텐츠를 시청하는 일은 가족 구성원 간

에 공동의 문화를 향유하고 이를 통해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둘째 일화의 여성들에게 인터넷을 통한 소통은 비록 현재로서는 미약하지만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자각하고 스스로, 그리고 뜻을 같이하는 구성원들과 연대하여 비판적 대안을 탐색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특히 한국으로 유학을 온 여성의 경우 인터넷으로 제공된 한국 문화는 새로운 삶을 계획하고 마침내 그 꿈을 이루어 내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그리고 셋째 일화처럼 우리는 소통을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학습하고 싶어 하고, 이를 통해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며, 더 나아가 인류의 문명과 문화 발전에 조금씩 기여한다. 비록 가끔씩은 필자처럼 잠시나마 잘못된 학습의 부작용을 겪기도 하지만 말이다.

이 글이 온라인 소통에 대한 것인 만큼 온라인 소통과 관련이 있는 일화를 소개했지만, 사실 소통의 목적이라는 측면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 첫째 일화는 신화의 구전을 통해 민족적 정체성을 이어 가고자 했던 선조들의 모습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둘째 일화는 '새야 새야 파랑새야' 하는 민요를 불러 새로운 시대를 열망했던 선조들의 모습, 그리고 셋째 일화는 목판에 글자를 아로새겨 지식을 널리 전파하고자 했던 선조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현재 국어 교육에서는 소통의 목적을 크게 정서 표현, 설득, 정보 전달의 세 범주로 구분하고 있는데, 위의 세 예화 역시 순서대로 이 세 범주와 상응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온라인 소통의 시대에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소통하는 방식이다. 인류는 소통하되 그 소통하고자 하는 내용, 즉 메시지를 어떻게 하면 왜곡 없이 온전한 형태로,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해 왔다. 문자의 도움을 기대하

기 힘들었던 시절에는 부르기 쉽고 외우기 쉬운 노래로 메시지를 만들어 동시대의 구성원들과 향유하거나 후대에 전하려고 했고, 문자가 발명된 뒤에는 무거운 점토판 위에 뾰족한 갈대로 글자를 새겨 넣음으로써 역사 시대를 열었다. 이후 종이와 인쇄술의 보급은 인류의 문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켰으며, 이윽고 현재의 디지털 문명은 전 세계를 하나의 두뇌로 엮어내기에 이르렀다.

소통 방식의 지속적인 발전은 비매개(immediacy)를 향한 끊임없는 도전이라고 할 수 있다. 비매개란 가끔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에서 꿈꾸는 것처럼 한 인간의 두뇌 속에 저장된 지식이나 그 머릿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고 작용이 어떠한 매체도 경유하지 않은 채 다른 인간의 두뇌 속으로 고스란히 전달되는 과정을 가상의 개념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현재까지 인류의 소통은 몸짓이든 음성이든 문자이든, 그리고 책을 통해서든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해서든 매체의 도움을 빌리지 않고는 실현 불가능하다. 이 매체들은 각기 고유의 물리적 속성을 지니며, 이로 인해 우리가 소통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메시지를 음성으로 담으려면 화자와 청자가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제3자의 입과 기억을 통해 그 메시지를 다른 시공간으로 옮기기도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애초의 메시지에 대한 왜곡이 일어나는 것은 일정 부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점에서 전화나 녹음기는 음성화된 메시지가 다른 시간과 공간으로 옮겨졌을 때 왜곡되는 정도를 최소화해 주는 획기적 매체였다. 활판 인쇄술과 책 역시 동일한 메시지를 수많은 사람에게 일시에 전할 수 있는 새로운 소통 방식을 가능케 해주었다.

그렇다면 온라인 시대의 소통 방식은 앞선 시대의 소통 방식을 극복하고 있는가? 여러 면에서, 그것도 획기적인 방식으로 극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적어도 필자가 일상 속에서 체험하는 온라인 소통의 힘은 실로 대단하다. 복잡한 기술적 장치와 별도의 공간이 없어도 노트북에 한두 가지 프로그램만 설치되고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동료 학자들을 언제든지 사이버 공간에서 만나 마치 서로 마주하는 것처럼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때로는 온라인 공간에 하나의 문서 파일을 만들고 여러 명이 동시에 서로 다른 부분을 작성해 하나의 최종 파일을 완성하기도 한다. 유학 시절 만났던 박사 과정 동료들이 지금은 세계 각지로 뿔뿔이 흩어져 있지만, 언제라도 누리소통망으로 안부를 묻고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위의 사례에서 보듯 온라인 소통은 음성을 통한 소통에서 두드러졌던 시간과 공간의 제한, 그리고 소통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의 제한을 대부분 극복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소통은 문자 소통의 일방향성을 극복하고 댓글과 링크를 통해 점점 더 양방향적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 그리고 보면 온라인 소통이 중요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것은 곧 온라인 소통을 통해 우리가 극복하고자 했던, 기존의 소통에서 나타난 제약들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부작용임을 알 수 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과 마치 한자리에 같이 앉아 있는 것처럼 느끼고 싶어서, 자신의 생각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서, 그리고 자신의 체험을 이왕이면 더 생생하게 전달하고 싶어서 발전시켜 온 소통의 방식들로 인해 더 자극적이고 더 직접적인 소통의 부작용들이 생겨나는 것이며 한번 발생한 부작용의 사회적 파장도 커지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장점을 극대화하되,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온라인 매체와 온라인 소통 방식을 대하는 자세여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온라인 소통의 본질을 알고, 소통 방식의 특성을 파악하며, 순기능과 역기능을 고찰하기 위한 본격적인 학습이 필요하며, 국어

교육이 그 역할을 수행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 부분을 다음 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

3. 온라인 소통의 시대와 국어 교육의 역할

국어 교육의 일차적인 목적은 소통 능력의 신장에 있다. 다시 말해 소통의 이유와 목적을 알고 다양한 소통의 방식을 알아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국어 교육이 담당해야 할 일차적인 역할이라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온라인 시대이든 먼 훗날 또 다른 소통의 시대이든 국어 교육의 본질적인 역할은 별로 달라질 것이 없다. 다만 소통의 방식이 날로 다양해지는 만큼 국어 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교육 내용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국어 교육의 최종 목적은 그러한 소통 교육을 통해 개별 학습자들이 당대의 소통 방식에 능숙해지고 그러한 능력을 기반으로 자신의 꿈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둘째 일화에서 소개했던 아랍 여성이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개척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다.

온라인 소통의 시대에 국어 교육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과 관련하여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온고지신’이라는 말이다. 즉, 인류의 소통 방식은 새로운 소통 방식이 등장했다고 해서 이전의 소통 방식을 폐기하는 형태가 아니라 기존의 것에 새로운 것을 엮는 누적 형태로 발전해 왔다. 온라인 소통이 삶의 곳곳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나누는 대화나 책 읽기, 신문 읽기는 여전히 주요한 소통 방식으로 나름의 고유한 가치를 지니며 우리 삶 속에서 작동하고 있다. 따라서 국어 교육의 역할이란 기존에 해 오던 것들을

충실히 수행함과 동시에 ‘지신’에 해당하는 부분을 적절한 교육의 내용으로, 그리고 적절한 교육의 방법으로 추출하여 제대로 교육하는 일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지신’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첫째, 온라인 매체의 속성과 온라인 소통 방식에 대한 지식적 이해이다. 즉, 본격적으로 매체를 활용한 소통 교육에 앞서 온라인 매체의 속성과 그 작동 방식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린아이에게 책을 올바르게 잡도록 하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 나가도록 교육하는 것, 연필을 바르게 쥐고 글씨를 바르고 예쁘게 쓰도록 가르치는 것 또한 문자 소통을 위한 적응 교육의 일환이다. 하지만 온라인 시대의 매체 적응 교육은 앞선 시대보다 훨씬 더 복잡한 양상을 띤다. 문자 소통 시대에 엘리트 집단에 속했던 사회 구성원들이 온라인 매체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를 자주 목격하게 되는 것도 매체 자체에 적응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일임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온라인을 통한 소통이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대량적으로 전개되며 그로 인해 사회적 부작용도 심화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그러한 문제 행동을 하게 될 때 야기될 부작용도 예측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온라인 매체는 소통 과정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방식의 정신 작용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 역시 국어 교육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교육 내용이 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온라인 소통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컴퓨터와 인터넷을 중심으로 매체 적응 교육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자.

우선, 인터넷의 텍스트는 하이퍼텍스트(hypertext)라는 점에서 인쇄된 텍스트와 차이를 보인다. 하이퍼텍스트란 용어는 1960년대에 컴퓨터 과학자였던 테드 넬슨(Ted Nelson)이 제안한 것으로, 텍스트와 텍

스트가 하이퍼링크를 통해 서로 즉시 연결이 가능한 형태로 끊임없이 결합해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인쇄 매체에서 읽기는 저자가 정해 놓은 순서에 따라 선형적인 형태로 전개되는 반면, 하이퍼텍스트에서 읽기는 독자의 관심과 판단에 따라 비선형적으로 전개되며 그만큼 독자들의 주도적이고 전략적인 읽기가 중요시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독자들은 어느 순간 인터넷에서 방향감을 상실할 수도 있고, 수많은 정보로부터 효과적인 취사선택을 못해 인지적 과부하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 따라서 인터넷 텍스트에 대한 읽기 교육에서는 인터넷 텍스트의 구조에 대한 이해와 인터넷 텍스트의 특성을 반영한 전략적 읽기 방법이 중요한 교육 내용으로 대두된다.

셋째 일화에서 필자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소통되는 메시지를 비판적으로 점검하는 능력도 온라인 소통 시대에 중요한 교육의 내용으로 부각되어야 한다. 온라인 소통의 시대는 곧 1인 출판 시대의 도래를 의미한다. 인쇄 매체 시대에는 소통할 메시지를 만드는 사람이 소수 엘리트 집단이었고, 인쇄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그 메시지를 점검하는 과정을 거쳤지만, 온라인 소통의 시대에는 그 모든 과정이 개인에게 맡겨지며 대개 생략된다. 온라인 매체 덕분에 더 많은 사람이 소통의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그만큼 더 다양한 목소리가 소통되는 장점도 있지만, 부정확하거나 편향되거나 왜곡된 정보로 다수의 사람들이 혼란을 겪게 될 가능성도 그만큼 더 커졌다. 따라서 소통할 메시지를 만드는 사람에게는 그만큼 사회적인 책임의식을 강조할 필요가 있으며, 메시지를 수용하는 이들에게는 메시지를 비판적·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해야 한다.

컴퓨터로 글을 쓰는 방식도 원고지나 종이에 연필로 글을 쓰는 방식과는 사뭇 다르다. 원고지 글쓰기에서는 손으로 글을 쓰는 활동 자체가

주는 물리적 고통과 쓰기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인해 수정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이 발달하게 된다. 글쓰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상당한 시간을 내용 창안과 개요 작성에 보내는 것은 수정을 최소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컴퓨터 글쓰기에서는 타자를 치는 속도가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사고의 속도를 따라가고, 이미 써 놓은 글에 대한 수정, 편집, 보관이 편리해짐에 따라 써 가면서 내용을 창안하고 조직하는 방식, 즉 모자이크 방식의 글쓰기 전략이 두드러진다. 따라서 컴퓨터를 이용한 글쓰기 교육에서는 컴퓨터와 글쓰기 소프트웨어가 제공하는 기능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러한 기능들을 충분히 활용하는 글쓰기 전략이 중요한 교육 내용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컴퓨터를 통한 글쓰기가 보편화하고 그렇게 작성된 글이 인터넷을 통해 쉽게 출판되면서 생겨난 부작용 중 하나는 무분별한 인용이나 표절의 문제이다. 그러나 저작권의 역사가 이미 수백 년으로, 온라인 매체 탄생보다 훨씬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 표절의 문제 또한 그 혐의를 온전히 온라인 매체에 씌울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는 저작권에 대한 이해 교육, 그리고 저작권에 대한 윤리 교육을 통해 극복해 나가야 할 문제이다.

4. 맺으며

이 글에서 필자는 개인적 체험과 이 분야에 대한 연구 성과를 토대로 온라인 소통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어떠해야 하는지, 더 나은 온라인 소통 문화를 만들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간략하게나마 살펴보았다. 국어 교육이 더 나은 온라인 소통 문화 조성의 일차적 역

할을 맡고 있지만 바람직한 온라인 소통 문화가 학교 교육만으로 가능해진다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우리의 편의를 위해 어디서든 온라인 소통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으며, 그로 인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어디서나 보고 배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가정과 직장, 대중매체, 상업적 포털 사이트 등 사회 전반이 같이 노력하지 않고서는 바람직한 온라인 소통 문화 형성은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